

隱숨으로 인한 陳述化구조 연구*

李昭東**

◁ 목 차 ▷

- I. 서론
 - II. 고대한어 품사의 보편적 隱숨
 - III. 隱숨에 따른 陳述化구조
 - 1. “NP+NP”(주술) 陳述化구조
 - 2. “NP+VP”(수식)/“VP+NP”(술보) 陳述化구조
 - 3. “NP者”陳述化구조
 - 4. “NP+NP”(술목) 陳述化구조
 - 5. “NP而/則VP” 陳述化구조
 - IV. 결론
-

I. 서론

陳述化는 명사성 성분이 술어나 부사어 등의 자리에 위치하여 명사 내부의 의미 구조가 지칭에서 진술로 전환됨을 의미하며, 통사적으로는 동사화 혹은 형용사화와 대응하는 술어이다.¹⁾ 陳述化는 현대한어에 비해 고대한어에서 더욱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는 고대한어의 경제적이고 운율감 있는 언어사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隱숨은 바로 이러한 경제적, 운율적 언어 구사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隱숨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隱숨은 먼저 생략과 구분되어야 한다. 생략은 화용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며, 생략된 성분은 바로 보충이 가능하지만, 隱숨은 앞뒤의 상관된 단어에 생략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충할 수 없다. 呂叔湘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54-A00091]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조교수

1) 李昭東 《〈史記〉指稱化現象研究》, 북경대학박사학위논문, 2010, 16쪽 참조.

은 생략의 판단 기준으로 2가지를 제시한 바 있는데, 첫째는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의미가 완전하지 않아야 되며, 둘째는 보충할 수 있는 단어가 앞뒤에 반복 출현하고 있는 바로 그 한 가지 단어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稿子寫得不好就重新寫，一次不行寫兩次，兩次不行寫三次”에서 “一次”，“兩次”의 앞에는 모두 동사 “寫”가 생략이 되어 있으며, 앞의 문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의미가 불완전하여, 언급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隱含의 예를 들면, “你一言，我一語”에서 “一言”，“一語”는 앞에 “說”이나 “來” 정도의 동사로 보충할 수 있으나, 반드시 둘 중의 하나에 국한 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실제로 보충하여 쓰지 않으며, 문장 또한 자연스럽다. 이때는 “說”이나 “來”가 생략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說”이나 “來”가 隱含되었다라고 표현을 한다.²⁾

위의 관점으로 볼 때, 陳述化는 화용적 측면에 의해 발생하는 생략과는 관계가 없으며, 隱含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대한어 자료를 살펴보면, 隱含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어떤 특수한 통사적 위치에서 발생하는 경우이며, 하나는 어떤 특수한 단어에서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를 陳述化의 동인과 연관시켜보면, 전자는 통사적 측면에서 특수한 통사적 위치에 의해 발생하는 陳述化와 대응되며, 후자는 품사적 측면에서 단어 내부의 진술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陳述化와 대응된다.³⁾ 본문에서는 전자, 즉 고대한어의 고정된 통사적 위치에서 발생하는 隱含과 그에 따른 陳述化구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연구는 고대한어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隱含性 통사구조를 밝히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陳述化 동인의 연구에 대한 허와 실을 판단하여, 陳述化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과 의의를 가진다.

II. 고대한어 품사의 보편적 隱含

고대한어에 존재하는 특수한 통사위치, 혹은 통사구조에 의해서 발생하는 隱含

-
- 2) 呂叔湘 《漢語語法問題分析》，《漢語語法論文集》，商務印書館，2002년，533-534쪽 참조.
3) 李昭東 〈“NP而VP(NP)”，“VP(NP)而NP”陳述化구조 연구〉，《中國語文學論集》2010년 제64집，131-139쪽 참조.

은, 그 구조에 隱습되어 있는 품사의 종류에 있어, 몇 가지로 국한되는 특징이 있다. 모든 언어에 있어 단어는 먼저 가장 큰 범위에서 實詞와 虛詞로 구분되어진다. 품사의 각도에서 볼 때, 논쟁의 여지가 많은 대명사와 부사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는 實詞로 개사, 접속사, 어기사, 조사는 虛詞로 구분할 수 있다. 虛詞는 문장에서 주로 단어와 단어 혹은 구와 구, 절과 절의 관계를 설정하는 통사의미만 가지기 때문에, 중국어와 같은 비형식 언어에서는 이들의 隱습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다. 특히 고대한어에서 보면, 이러한 虛詞뿐 아니라, 동사가운데, 의미자질이 약한 분류동사나 사역동사의 隱습 또한 빈번히 발생하는데, 아래에서는 고대한어에서 隱습이 발생하는 이러한 품사의 종류와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甲. 분류동사의 隱습

분류동사는 학자들에 의해 同動詞(馬建忠(1983), 黎錦熙(1992)), 繫辭(王力(1985), 呂叔湘(1982)), 판단동사(張靜(1980)), 관계동사(劉月華(2001)) 등으로 명명되어 오면서, 그 특이성으로 인해 동사가운데 비교적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분류동사의 정의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은 비교적 일치한다. 즉 분류동사는 일반 동사처럼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전후의 두 항목이 동일한 관계이거나 같은 분류임을 증명하거나 인정하는 동사를 의미한다.⁴⁾ 분류동사의 범위 선정에 있어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하지만, 비교적 공통된 의견을 따르면, 고대한어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동사들을 분류동사로 분류할 수 있다.

繫辭類 - 是, 爲, 乃, 卽, 非

准繫辭類 - 1) 作爲/認爲類: 作, 爲 2) 稱爲類: 稱, 謂, 曰 3) 猶若類: 猶, 若, 如, 像⁵⁾

4) 張玉林 〈關係動詞의 鑑定標準〉, 《言語教學與研究》2002년 제4기, 49쪽 참조.

5) 이 분류는 기본적으로 呂叔湘(《中國文法要略》(1982))의 분류를 따랐으며, 呂叔湘이 언급한 變化義를 빼고, 認爲類를 作爲類에 추가하여 함께 언급하였다.

위의 동사들은 모두 이 동사들이 연결하는 전후 2개의 항목에 대한 관계를 긍정하거나 인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단지 그 정도가 조금 강하고 조금 약한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즉 繫辭類의 동사는 A와 B항의 관계에 있어, “A는 B다”라는 비교적 강한 긍정을 나타내지만, 准繫辭類는 “A는 B가 되다”, “A는 B와 같다”, “A를 B로 삼다/여기다/칭하다”등의 비교적 약한 긍정이나 인정을 나타내고 있다.

위와 같은 분류동사들의 주 임무는 전후의 두 항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분류임을 나타낼 뿐이어서, 다른 실사들에 비해 약한 의미자질을 가지며, 이에 따라 문장의 의미 전개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대한어에서 이들의 隱畵는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며, 현대한어에 비해 더욱더 경제적인 언어구사를 하는 고대한어에서 이들의 隱畵는 더욱더 보편적으로 발생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1) a. 破臣之國以勉君之國，此臣之所難也。《呂氏春秋·審己》
(신의 나라를 깨트려서 군의 나라를 돕는 것은 신이 어렵게 여기는 바입니다.)
- b. 魯弱晉而遠吳，馮恃其衆而背君之盟《左傳·哀公七年》
(魯나라는 썩나라는 약하고, 馮나라는 멀다고 여겨, 그 백성의 많음을 믿고, 군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 c. 其家甚智其子，而疑隣人之父。《韓非子·說難》
(그 집에서는 그 아들을 아주 지혜롭다 여기지만, 이웃의 아버지는 의심하게 될 것이다.)

위의 예문은 소위 형용사의 “意動”용법이다. a의 “所難”은 의미상으로 “어려운 바”가 아니라, “어렵게 여기는 바”의 의미가 되어, 형용사 “難”에 “~라 여기다”, “~라 생각 한다”의 의미를 가진 분류동사 “爲” 혹은 “以”가 隱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b, c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弱”과 “智”의 뒤에 목적어가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동사화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역시 “~라 여기다” 정도의 뜻을 가진 동사 “爲”가 隱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용사나 동사의 “意動”용법은 고대한어에서 이미 고정된 통사술어로 정착이 되었는데, 이는 모두 분류동사의 隱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 외에 분류동사의 隱畵는 각종 陳述化 구조에 직접적인 동인이 되는데, 다음 장에서 상세히 언급하도록 한다.

乙. 사역동사의 隱습

사역동사인 “使”와 “讓” 역시 고대한어에서 빈번히 隱습이 발생하는데, 비록 개사는 아니지만, 다른 동사에 비해 실질적 의미가 없이, 주어와 겸어와의 관계를 설정할 뿐이다. 보충하자면, 사역동사는 자체의 약한 의미자질로 인해 문장에서 독립적인 핵심술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뒤에 반드시 핵심동사가 출현해야 함으로, 사역의 의미를 유도하는 준개사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 동사의 隱습은 고대한어에서 소위 “使動”용법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만큼, 이미 계통성을 지니고 있다.

- 2) a. 求也退, 故進之; 由也兼人, 故退之. 《論語·先進》
(求是 항상 움츠러 있어 그를 나아가게 하였고, 由는 진취심이 남의 두 배여서 물러나게 하였다.)
- b. “既庶矣, 又何加焉?” 曰:“富之”. 《論語·子路》
(백성이 이미 많아 졌으면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하기를 “풍족하게 해야지”라고 하였다.)
- c. 性者, 萬物之本也, 不可長, 不可短. 《呂氏春秋·貴當》
(性이란 것은 만물의 근본으로,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다.)

위 예문은 모두 동사와 형용사의 使動용법으로, “進之”, “退之”, “富之”는 의미상 각각 “그를 나아가게 하다(使之進)”, “그를 물러가게 하다(使之退)”, “그를 부유하게 하다(使之富)”의 의미로,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역동사 “使”나 “讓” 등의 동사가 隱습되어 있다. c의 형용사 “長”과 “短”은 먼저 “길어지다(爲長)”, “짧아지다(爲短)”의 의미를 지닌 동사로 “活用”된 뒤, 다시 使動의 의미가 첨가되어 “길어지게 하다(使爲長)”, “짧아지게 하다(使爲短)”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진술의 미로 볼 때, 역시 “되다”의 의미를 지닌 분류동사 “爲”와 사역동사 “使” 등이 동시에 隱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丙. 介詞의 隱含

개사는 일반적으로 동사에서 虛化의 과정을 거쳐 완성이 된다. 따라서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적 자질이 약하여 虛詞로 분류되고 있으며, 동사와 연관된 사물들을 동사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 관계 설정만 할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사는 종종 隱含의 대상이 되는데, 개사는 일반적으로 명사와 함께 개사구조를 이루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어가 되거나 동사 뒤에서 보어가 되지만, 고대한어에서 “명사부사어(名詞狀語)”, “명사보어” 등의 술어는 개사의 빈번한 은함을 단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명사부사어”나 “명사보어”는 모두 陳述化와 관련이 있어 다음 장에서 상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丁. 접속사의 隱含

접속사는 “與”, “及”, “而” 등 소수의 단어와 단어, 구와 구를 연결하는 용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문장과 문장을 잇는 복문에 쓰인다. 일반적으로 복문을 병렬복문과 종속복문으로 나눌 때, 전후 의미의 輕重 없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순접이나, 역접, 선택 등을 나타내는 병렬복문에서는 “而”, “於是”, “乃”, “因而” 등의 접속사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아마도 문장과 문장의 관계는 이보다 짧은 구와 구, 단어와 단어에 비해 의미가 분명하여 접속사가 없어도 이해에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종속복문은 종속절과 주절이 일반적으로 “원인-결과”, “조건-결과”, “양보-결과”, “시간-사건” 등의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를 띠고 있어, 의미상 하나의 절에서 “개사구조-핵심술어”의 수식구조와 중복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학자들은 종속복문의 통사적 지위를 취소하고, 종속절에 등장하는 접속사 “如(조건)”, “雖(양보)”, “以(원인)”, “及(시간)” 등을 개사로 간주하기도 한다.⁶⁾ 종속복문의 경우에 있어서, 접속사의 隱含은 병렬복문만큼 일반적이진 않지만, 역시 빈번히 발생한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6) 대표적으로 馬建忠(《馬氏文通》1983)과 宋紹年(《馬氏文通研究》2004)을 들 수 있다.

- 3) a. 不殺二者, 憂必及君. 《左傳·成公十七年》
 (두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근심이 반드시 굳게 미칠 것입니다.)
- b. 古者言之不出, 恥躬之不逮也. 《論語·先進》
 (옛날에 말을 잘 하지 않는 것은, 몸으로 실천하지 못할 것을 부끄러워해서였다.)
- c. 終申子之身, 國治兵彊, 無侵〈韓〉者. 《史記·老子韓非列傳》
 (申자가 죽었을 때, 나라는 다스려지고 병사는 강해져, 한나라를 침범하는 나라가 없었다.)
- d. 臣以爲湯武復生, 不易攻也. 《史記·穰侯列傳》
 (신이 생각컨데, 湯, 武가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쉽게 공격할 수 없다)

위 예문들은 모두 종속복문으로, 차례대로 조건, 원인, 시간, 양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의미구조상 접속사 “如/若”, “以”, “及”, “雖/縱” 등이 종속절에 隱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고대한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단어의 隱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들 단어의 隱숨은 우연히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고정된 용법과 술어가 창출될 만큼, 이미 그 계통성을 갖추고 있다. 언급했던 “意動용법”, “使動용법” 등의 술어를 포함해서 다음의 장에서 언급할 “명사술어문”, “명사부사어” 등의 陳述化구조는 오늘날 어법학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술어는 바로 고대한어에서 분류동사와 사역동사, 개사, 접속사의 隱숨에 의해 탄생된 “隱숨性구조”라고 할 수 있다. 고대한어에서 주로 隱숨이 발생하는 분류동사, 사역동사, 개사, 접속사는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단어의미(詞匯意義)보다 문장에서 성분과 성분의 관계를 규정짓는 통사의미(語法意義)가 의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허사로 분류되는 개사와 접속사는 통사의미만 있고, 단어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적인 언어구사로 운문의 느낌마저 주는 고대한어의 문체로 볼 때, 이들의 隱숨은 비교적 자연스러울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

Ⅲ. 隱숨에 따른 陳述化구조

어떤 특수한 통사적 위치에서 발생하는 隱숨性 구조는 위에서 언급했던 몇몇 품

사들의 隱속에 의해 야기되며, 특정한 통사적 위치에 출현하는 몇몇 陳述化구조는 바로 이러한 隱索性 구조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모든 陳述化가 분류동사나 개사, 접속사의 隱속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래의 다섯 陳述化구조는 이들 단어의 隱속이 陳述化의 직접적인 동인이 된다. 아래에서는 隱索性 구조 가운데, 특히 陳述化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다섯 陳述化구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1. “NP+NP”(주술)陳述化구조

“NP+NP” 주술구조는 고대한어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소위 명사술어문이다. “NP+NP” 명사 술어문은 일반적으로 판단문이나 묘사문을 형성하는데, 전체 구문은 “NP는 NP이다/NP라 한다/NP같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술어에 해당하는 NP 자체로는 “~이다”, “~라 한다”, “~같다” 등의 술어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고대한어에서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판단동사 “爲”, “謂”, “像” 등의 판단동사가 술어인 NP에 隱속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4) a. 公子州吁, 嬖人之子也. 《左傳·隱公三年》
(公子州吁는 嬖人之子이다.)
b. 天子適諸侯曰巡狩, 巡狩者, 巡所守也. 《左傳·隱公三年》
(천자가 제후의 나라를 가는 것을 巡狩라 하는데, 巡狩라는 것은 지켜야 할 곳을 순시함을 말한다.)
c. 且是人也, 蜂目而豺聲, 忍人也, 不可立也. 《左傳·文公元年》
(이 사람은 벌의 눈과 송냥이의 소리를 닮았고, 잔인하여 즉위시킬 수 없다.)

판단문에 해당하는 a, b는 전체 문맥의 의미상, 주어와 술어의 두 항 사이에 “~이다”, “~라 한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판단동사 “乃”, “爲”, “謂”, “曰” 등이 필요하지만, 고대한어 고유의 “NP+NP” 명사술어문에서 이들 동사가 술어 명사에 隱속이 되어 있으며, 같은 “NP+NP” 주술구조로 묘사문에 해당하는 c 역시 “如”나 “像” 등의 猶若類 분류동사가 隱속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陳述化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들 명사술어문은 다음의 陳述化 과정을 거친다.

NP → 爲NP/謂NP/像NP

2. “NP+VP”(수식)/“VP+NP”(술보)陳述化구조

“NP+VP”구조와 “VP+NP”구조는 고대한어에서 소위 명사부사어(명사상어)와 명사보어(명사보어)에 해당되는 구식이다. 여기서 NP는 각각 부사어와 보어에 충당되는 명사성 성분인데, 고대한어에서 명사를 포함한 부사어나 보어는 일반적으로 “개사+명사”의 개사구조를 취하지만, 개사의 약한 의미자질로 인해 명사에 隱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존재한다. 아래의 예를 보자.

- 5) a. 伯夷死名于首陽之下, 盜跖死利于東陵之上. 《莊子·駢拇》
(伯夷는 수양 아래에서 이름을 위해 죽고, 盜跖은 동릉 위에서 利를 위해 죽었다.)
- b. 吳王出勞軍, 卽使人縱殺吳王, 盛其頭, 馳傳以聞. 《史記·吳王濞列傳》
(吳王이 군대를 위로하러 나가자, 즉시 사람을 보내어 吳王을 창으로 죽이게 하여, 그 머리를 담아서 傳車를 달려 보고케 하였다.)
- c. 死長安卽葬長安, 何必來葬爲! 《史記·吳王濞列傳》
(長安에서 죽었으면, 長安에서 장사를 지내야지, 왜 와서 장사를 지내는가?)
- d. 日出東方. 《莊子·田子方》
(해는 동방에서 뜬다)

a에서 동사 “死”는 고대한어에서 순수자동사로 목적어를 취하지 않지만, 만약 목적어를 취할 경우에는 소위 “爲動”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死名”과 “死利”는 각각 “이름을 위해서 죽다”, “利를 위해서 죽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명사 “名”과 “利”는 단지 “이름”과 “이익”이라는 명사의 개념의를 나타낼 뿐 아니라, “이름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는 개사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고대한어에서 “~위해서”의 의미를 나타내는 개사 “爲”가 명사 “名”과 “利”에 隱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문 b의 명사 “縱”은 문장에서 명사부사어으로써, c, d의 명사 “長安”, “東

方”은 명사보어으로써, 각각 “창으로써”, “장안에서”, “동방에서(으로부터)”의 의미로 나타내어, 원래의 명사 의미에 도구, 장소, 기원 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고대한어에서 도구, 장소, 기원은 일반적으로 개사에 의해 동사에 소개되는데, 바로 개사 “以”, “於”, “自(於)” 등의 개사가 이들 명사에隱藏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개사 “以”와 “於”는 위의 예문 b, c에서 동사와의 의미관계상 도구나 처소를 유도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의미 성분을 소개할 수 있는데, 이들의 隱藏 또한 빈번히 발생한다.

- 6) a. 范中行氏皆衆人遇我, 我故衆人報之. 《史記·刺客列傳》
 (范氏와 中行氏는 모두 중인의 신분으로써 나를 대우하였기 때문에, 나 역시 중인의 신분으로써 그에게 보답하였다.)
- b. 是以一夫唱而天下和, 兵破陳涉, 地奪諸侯, 何嗣之所利? 《鹽鐵論·結和》
 (이 때문에, 一夫가 봉기하자 천하가 동조하여, 군대는 陳涉에게 패하고, 땅은 제후에게 빼앗겼으니, 후대 자손들에 이로운 바가 무엇이겠는가?)
- c. 臣以力事君子也, 今徐子力多臣. 《韓非子·外儲說左下》
 (신은 힘으로써 군자를 섬겼지만, 지금 徐子의 힘은 신보다 많습니다)

예문 a에서 명사부사어에 해당하는 “衆人”은 “중인으로써”의 의미로 신분을 나타내는 개사 “以”의 의미가 함께 隱藏되어 있으며, b, c에서 보어 위치에 있는 명사 “陳涉”, “諸侯”, “臣”은 각각 “진섭에 의해”, “제후에 의해”, “신보다”의 의미로 피동과 비교를 나타내는 개사 “於”의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陳述化의 관점에서, 이들의 陳述化 과정은 다음과 같다.

NP+VP(수식) → 개사+NP+VP

VP+NP(술보) → VP+개사+NP

3. “NP者”陳述化구조

“NP者”는 陳述化구조이자 指稱化구조라 할 수 있다. 고대한어에서 “者”와 “所”는 대표적인 명사화표기로 반드시 동사성성분과 결합하여 지칭화구조인 “VP者”, “所VP”구조의 핵심요소가 된다. “VP者”구조에서 VP대신 NP성분이 출현할 때 이 NP

성분은 먼저 VP로의 陳述化과정을 겪은 다음에야 指稱化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NP者”는 指稱化구조이기 전에 陳述化구조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NP者”에 대해 의견이 아직 분분한데, 먼저 아래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 7) a. 陳勝者, 陽城人也, 字涉. 《史記·陳涉世家》
(陳勝은 陽城사람이고 자는 涉이다.)
- b. 天者, 高之極也; 地者, 下之極也; 日月者, 明之極也; 無窮者, 廣大之極也. 《史記·禮書》
(하늘은 높음의 극이고, 땅은 낮음의 극이며, 일월은 밝음의 극이고, 무궁은 광대함의 극이다.)
- c. 楚有養由基者, 善射者也. 《史記·周本紀》
(초나라에 養由基라는 자가 있는데, 활을 잘 쏘는 자이다)
- d. 張良曰: “沛公之參乘樊噲者也.” 《史記·項羽本紀》
(張良이 말하기를 沛公의 참모, 樊噲라는 자입니다.)

朱德熙(1983)는 위와 같은 “NP者”를 指稱化구조 가운데 “自指”에 해당한다고 하였다.⁷⁾ 그 이유는 “者”가 가리키는 것이 다른 성분이 아닌 바로 앞에 출현하는 NP여서인데, “自指”는 “轉指”와 함께 指稱化구조이며, 동사성성분을 명사성성분으로 바꾸는 것이 指稱化의 정의임을 감안하면, 이 “NP者” 자체로는 “轉指”구조든 “自指”구조든 지칭화구조가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자들이 이 “NP者”의 “者”를 復指대명사로 인식하고 있는데, 李佐豐(2002)과 宋紹年(2002)이 대표적이다. 예문 a의 “陳勝者”를 가지고 볼 때, 만약 復指대명사의 “者”를 응용하면, “陳勝者”는 “陳勝, 이 사람(陳勝, 這個人)” 정도의 뜻이 되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예문c와 d같이 “NP者”가 문두에 출현하여 진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의 위치에 출현하여 처음 등장하는 인물을 소개할 때, 復指대명사 설은 문제가 생긴다. 즉 “NP者”를 復指대명사로 풀어 “楚有養由基者”를 “초나라에 養由基, 이 사람이 있었다.”라 하게 되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져, 인물 소개와 거리가 멀어진다. 반드시 “養由基라는 사람(謂養由基者)”, “樊噲라고 하는 사람(謂樊噲

7) 朱德熙 〈自指和轉指—漢語名詞化標記“的、者、所、之”的語法和語義功能〉(《朱德熙文集 第三卷》, 商務印書館, 1983/1999년)에서 “自指”와 “轉指”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본문에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해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者)이 되어야 처음 등장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앞뒤 문맥의 의미와 부합한다. 따라서, “NP者”는 袁毓林(1997)이 지적했듯이, 분류동사 가운데, 稱爲類동사 “謂”나 “曰”이 은함된 “(謂/曰)NP者”의 형태로 보아야 하며, 예문 a, b의 “NP者” 또한 “진승이라는 사람”, “하늘이라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다시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8) a. 此四子者, 功成不去, 禍至於此. 《史記·范雎蔡澤列傳》
 (이 네 사람은 공을 이루고도 떠나지 않아 화가 이에 이르렀다)
 b. 昔者鄭武公欲伐胡, 迺以其子妻之. 《史記·老子韓非列傳》
 (예날, 鄭武公이 오랑캐를 벌하려 하자, 이에 그 아들로써 장가보냈다.)

위의 “NP者”의 “者”에 대해, 復指대명사라는 주장 외에, 많은 학자들이 조사 용법으로 분류를 하였으며, 朱德熙는 일종의 지시 작용을 하는 自指용법이라고 보았다.⁸⁾ 예문 a의 “此四子者”를 보면, 이미 지시대명사 “此”자가 있어 “者”가 다시 復指대명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기에 더욱 무리가 있다. 위 예문 역시 분류동사의 隱含이라는 각도에서 설명이 가능한데, 고대한어에서는 예문 a의 형식뿐만 아니라, 같은 의미를 지닌 아래의 문장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9) a. 若此三子者, 固義之至也, 忠之節也. 《史記·范雎蔡澤列傳》
 b. 若此三行者, 世主不臣而鄉里不通. 《史記·魯仲連鄒陽列傳》
 c. 若此二士者, 非不能成小廉而行小節也. 《史記·魯仲連鄒陽列傳》

위의 예문은 모두 “若NP者”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직역하면 “NP와 같은 사람/행위/것” 등이 되지만, 실제로는 NP를 의미하여 예문 8) a의 “NP者”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분류동사의 隱含이라는 고대한어의 보편적 통사특징에 비추어 볼 때, “此四子者”는 바로 猶若類 분류동사 “若” 등이 隱含된 형태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문 b의 “昔者”는 “시간사+者”의 형태인데, 시간은 화제성이 약하고 배경성이 강함으로 인해, 시간사와 결합하는 “者”는 조사로 처리되는 경향이 더욱더 많다. 朱德熙가 언급한 소위 지시 작용이 강한 自指용법으로서의 “者”는 본문에서

8) 위의 책 36쪽 참조.

의 轉指용법의 “者”와 상통하는데, “昔者”를 포함하여 시간사와 “者”가 결합된, “暮春者”, “夜者” 등의 정확한 의미는 “옛날이었을 때(是/爲昔者)”, “늦봄일 때(是/爲暮春者)” 혹은 “늦봄이 되었을 때(爲暮春者)”, “밤이 되었을 때(爲夜者)”로 풀이되어야 하지만, 배경성이 강한 시간사의 특징으로 인해 종종 “者”의 轉指 용법이 부각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朱德熙가 말한 지시의미는 바로 분류동사가 隱습된 轉指용법 “NP者”의 “者”가 바로 앞에 출현하는 NP를 한 번 더 가리키면서 발생하는 통사의미라고 할 수 있다.

4. “NP+NP”(술목) 陳述化구조

앞 장에서 주술구조에 해당하는 “NP+NP”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즉 NP가 명사술어문에 충당될 때, 실제의 의미구조는 “분류동사+NP”로, 분류동사의 은함된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고찰할 “NP+NP”구조는 형식상의 술목구조로, 술어에 위치한 NP에 진술의미가 부가될 뿐 아니라, 목적어에 충당되고 있는 NP 역시 어느 정도의 진술의미를 띤다.

- 10) a. 華元曰: “過我而不假道, 鄙我也” 《莊子·駢拇》
 (華元이 말하기를 “우리를 지나치면서 길을 빌리지 않은 것은 우리를 자기의 비유으로 여겨서이다”라 하였다)
- b. 夫人之, 我可以不夫人之乎? 《谷梁傳·僖公八年》
 ((춘추경에) 그를 부인으로 여겼으니, 내가 그를 부인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위의 예문은 일종의 명사술어문으로 陳述化가 발생한 용례인데, 위에서 언급되었던 판단문이나, 묘사문에서가 아닌, 명사가 서술문의 술어에 위치하여 陳述化가 발생한 경우이다. 예문에서 “鄙我”, “夫人之”는 각각 “우리를 비유으로 여긴다”, “그를 부인으로 여긴다”의 의미가 되어, 위의 형용사 술어문과 마찬가지로, 술어에 위치한 명사 “鄙”와 “夫人”이 意動동사로의 陳述化가 발생한 것이다. 고대한어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로 “以A爲B”의 구문이 존재한다. 의미구조상 역시 “以我爲鄙”, “以之爲夫人”이 되어, 분류동사 “爲”와 개사 “以”가 동시에 은함 되면서, 어순이 조정된

형태이다. 여기서 은함과 어순의 조정은 서술의 편의를 위해 “鄙我”와 “以我爲鄙”의 두 구조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서술했을 뿐이지, 고대한어를 사용했던 실제 언어사용자들이 “鄙我”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 “以我爲鄙”라는 고정된 틀을 머릿속에 미리 염두해 두고 은함과 어순 조정의 변환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다. 즉 “鄙我”, “以我爲鄙” 이 두 표현 가운데, 문장의 문체와 풍격에 맞게 취사선택하여 구사하였을 뿐이다. 만약 “鄙我”라고 했다면, 명사 “鄙”는 고인의 머릿속에 이미 “爲鄙”, “作鄙” 등의 의미체계가 형성이 되어 술어로서 출현하였던 것이고, 명사 “我”는 고대한어의 실제 사용 습관을 반영하여 술어 다음에 목적어로 왔던 것이다.⁹⁾ 앞 장에서 사역동사가 은함된 使動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는데, “NP+NP” 술목구조에서는 意動용법 외에 사역동사와 분류동사가 은함된 使動용법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1) a. 乘勢, 則哀公臣仲尼. 《韓非子·五蠹》

(기세를 타자, 哀公은 공자를 신하 삼았다)

b. 陳人使婦人飲之酒, 而以犀革裹之. 比及宋, 手足皆見. 宋人皆醢之 《莊子·駢拇》

(진나라사람은 부인들로 하여금 그에게 술을 먹이게 하고, 소가죽으로 그를 싸다. 송나라에 이르러, 수족이 모두 드러나자, 송나라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육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위 예문에서 “臣仲尼”, “醢之”는 각각 “仲尼를 신하 삼다(되게 하다)”, “그를 육것으로 만들다(되게 하다)”의 뜻으로, 고대한어 용례에 비추어볼 때, 사역동사 “使”와 분류동사 “爲”가 포함되어 있는 “使仲尼爲臣”, “使之爲醢”의 의미구조를 짐작할 수 있다.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고대한어에서 통용되고 있는 意動용법이나 使動용법 등의 술어는 바로 분류동사나, 개사, 접속사 등의 의미자질이 약한 단어의 은함에 의해 창출이 되며, 하나의 단어뿐만 아니라 하나 이상의 단어가 은함되어 만들어 질 수도 있다. 이들 단어의 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陳述化는 오래전부터 詞類

9) 만약 개사가 포함된 “以我”의 형태라면, 술어의 앞에서 부사어로 주로 출현하지만, 개사가 없는 명사단독으로 출현할 때는 부사어와 보어의 위치에 모두 출현할 수 있다. 하지만, 고대한어에서 “N+N”의 형태가 수식구조가 되는 용례는 드물고, 이와 같이 意動동사로 陳述化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이 술목 구조를 띠고 있다.

活用이라는 술어와 함께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陳述化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거의 대부분 연구가 이러한 통사적 배경을 무시한 채, 의미적 측면에만 입각하여 술어에 위치한 명사 내부의 진술의미 요소를 밝히는데 그치고 있다.

5. “NP而/則VP”陳述化구조

접속사 “而”, “則”은 《馬氏文通》 이후로 동사성성분을 연결하는 접속사로써, 앞뒤 성분이 連動구조 혹은 동사성 수식구조(狀中구조)가 되는 점에 별 이견이 없다. 따라서 “而”와 “則” 전후에 명사성성분이 출현하면, 그 진술의미 정도에 따라 陳述化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陳述化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 두 접속사를 陳述化의 형식 표기로 삼아 진행되어 왔다.¹⁰⁾ 본 절에서 언급할 “NP而/則VP” 陳述化구조는 이러한 형식을 가진 구조 가운데서도, 접속사 “而”, “則”이 연결하는 앞뒤의 NP와 VP가 의미상 주술구조를 이루고 있는 구조인데, 이러한 “而”, “則”은 흔히 화제주어를 나타내는 표기로 간주되기도 한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 12) a. 子曰: “人而無信, 不知其可也”. 《論語·爲政》
(孔子가 말하기를 “사람이면서 신의가 없으면, 사람 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 b. 夫諸侯而驕人則失其國, 大夫而驕人則失其家. 《史記·魏世家》
(제후이면서 남에게 교만하면 그 나라를 잃고, 대부이면서 남에게 교만하면 그 집안을 잃는다.)
- c. 明主則不然, 賞必加于有功, 刑必斷于有罪. 《全國策·秦三》
(명주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반드시 유공자에게 상을 내리고, 유죄자에게 형벌을 내린다.)
- d. 韓入臣, 魏則從風以動. 《全國策·楚一》
(한나라가 신하로 들어오면, 위나라 같으면 바람을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10) 대표적인 연구로는 張文國(2005)의 《古漢語的名動詞類轉變及其發展》, 陳祝琴(2007)의 《論上古漢語體詞性成分的陳述化》, 그리고 呂厦敏(2010)의 《左傳名詞陳述化研究》 등이 있다.

위 예문의 “NP而/則VP”구조에서 NP와 VP는 논리적 의미구조상으로 볼 때, 모두 주술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접속사 “而”와 “則”이 동사성성분을 연결하는 접속사임을 감안하면, “而”와 “則” 앞의 NP성분이 陳述化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화제주어의 성격을 띠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진술 의미구조를 가지는데, 예문 a, b에서 접속사 “而” 앞의 NP성분인 “人”, “諸侯”, “大夫” 등은 모두 “NP이면서(爲NP)” 혹은 신분을 나타내는 “NP로써(作爲NP)”와 같은 진술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예문 c, d에서 NP인 “明主”, “魏”는 모두 “NP같으면(若NP)”, “NP라면(若是NP)”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위 예문에서 접속사 “而/則”의 앞에 출현하고 있는 NP는 VP와의 논리적 의미관계상 주어 가운데에서도 주체자(施事)와 진술의 대상(當事)을 나타내고 있다. 이 외에도 객체주어(受事)가 NP에 충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의 예문을 보자.

- 13) a. 人主所居而人臣知之, 則害於神. 《史記·秦始皇本紀》
 (人主가 거주하는 곳인데, 남들이 알면, 신성에 해가 됩니다.)
 b. 俎豆之事, 則嘗聞之矣; 軍旅之事, 未之學也. 《論語·魏靈公》
 (제사지내는 일이라면, 일찍이 들었건만, 전쟁 치르는 일은 배우지 않았다.)

위 예문에서 접속사 “而/則”의 앞에 출현하고 있는 NP성분은 뒤에 출현하는 VP와의 의미관계상 객체주어를 나타낸다. NP의 진술 의미는 위의 當事주어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전후 문맥과 접속사 “而”의 특징을 고려할 때, a, b의 “人主所居”, “俎豆之事”는 “是/爲人主所居”, “若是/爲俎豆之事”의 진술 의미구조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접속사 “而” 앞의 NP위치에 일반적으로 일반명사가 출현하는데, 많지는 않지만, 고유명사가 출현하는 예도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14) a. 管氏而知禮, 孰不知禮! 《論語·八佾》
 (管氏 같은데도 예를 안다고 하면, 누가 예를 알지 못하겠는가?)
 b. 子產而死, 誰其嗣之. 《左傳·襄公十三年》
 (子產 같으면서 죽는다면, 누가 그를 잇겠는가?)

위의 예문은 접속사 “而”의 전후로 논리상의 주술관계가 더욱 더 분명하여, 주어에 해당하는 NP의 진술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陳祝琴은 위 예문의 “管氏”와 “子産”을 일종의 類推성분으로 보고서 “管氏와 같은 자(像管氏這樣的人)”, “子産과 같은 현신(像子産這樣賢臣)”으로 풀었으며¹¹⁾, 呂厦敏은 “子産而死”에서 “子産”을 “提及子産(子産에 대해 언급하자면)”이라 하여 뒤 절에서 진술할 범위를 제시해 주는 의미로 풀이하였다.¹²⁾ 위의 해석은 의미상 모두 가능하지만, 각자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의미를 부여한 면이 없지 않다. 즉 陳祝琴은 陳述化의 동인 가운데 하나로 類推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類推로써 해석을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呂厦敏은 NP성분의 화제성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문 13)과 14)에서 언급했듯이, NP, VP가 논리구조상 주술관계를 나타내는 “NP而/則VP” 구조에서 NP는 일반적으로 “若NP”, “若是(爲)NP”, “爲NP”, “作爲NP”의 진술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 呂厦敏이 화제성을 부각시켜 “子産”을 “提及子産(子産에 대해 언급하자면)”이라고 한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作爲子産(子産에 있어)”, “若子産(子産같으면)” 등 의미의 부연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고대한어에서 아래와 같은 예문을 자주 접할 수 있다.

- 15) a. 孔子序列古之仁聖賢人, 如吳太伯伯夷之倫詳矣. 《史記·伯夷列傳》
 (孔子는 옛날의 인자, 성인, 현인들을 차례대로 언급하였는데, 오대백과 백이의 무리에 대해서는 상세히 언급하였다.)
 b. “若由也, 不得其死然.” 《史記·仲尼弟子列傳》
 (由는 제명에 죽지 못할 것이다.)
 c. 至於龍, 吾不能知, 其乘風雲而上天. 《史記·老子韓非列傳》
 (용에 대해서는 나는 알지 못하겠다.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위의 예문은 주어에 “若”, “如”, “至於” 등이 붙어, 주어에 대한 화제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표현인데, 예문b의 “若由也”는 “由와 같다면”, “由로 말하자면”, “由에 있어서는” 등의 화제성 주어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위 예문의 子産을 “提及子産”

11) 陳祝琴 《論上古漢語體詞性成分的陳述化》, 북경대학석사학위논문, 2007, 39쪽.

12) 呂厦敏 《左傳名詞陳述化研究》, 북경대학석사학위논문, 2010, 22쪽.

이라 한 것과 “若子産” 혹은 “作爲子産”이라고 풀이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 할 수 있다.

陳述化에 대한 연구는 指稱化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근래에 들어 접속사 “NP而/則VP” 등의 有標記 陳述化구조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陳述化 발생의 동인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자 한다. 指稱化와 陳述化는 일반적으로 그 단어내부에 가지고 있는 지칭요소와 진술요소에 의해 발생한다. 즉 같은 명사라 할 지라도 내부에 진술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추상명사나 사건명사는 다른 명사들에 비해 陳述化 발생 빈도가 높으며, 指稱化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칭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행위동사 등의 指稱化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¹³⁾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단어 자체의 의미적 경향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발생 동인의 전부는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고대한어에서 판단문의 술어는 일반적으로 명사성성분에 의해 충당이 되어 陳述化가 발생하는데, 분명한 것은, 판단문의 술어에 충당되는 명사성성분은 뚜렷한 경향이 없이 모든 명사성성분이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와 같은 陳述化의 발생 동인이 명사성성분 내부의 의미요소와 전혀 관련이 없음을 뒷받침해주는 단적인 예이다. 한 시대의 어법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실제 언어 현상을 토대로 설명이 되어야 한다. 고대한어에서 명사술어문, 使動용법, 意動용법 등은 통사구조상 하나의 계통성을 가지는 언어 현상이다. 그 계통성의 근간은 충당되는 명사의 내부의미가 아니라, 바로 분류동사와 개사, 접속사의 은합이라는 통사적 특징인 것이다. 張文國(2005)은 陳述化 발생 동인의 진술의미 요소로 명사 내부에 가지고 있는 文化義 등을 지적한 바 있고, 陳祝琴(2007)은 類推義를 언급하였다.¹⁴⁾ 물론 이러한 명사 내부의 의미 요소는 陳述化 발생의 의미적 기초가 될 수 있지만, 고대한어의 통사적 특징이 반영되어 발생하는 陳述化의 경우와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한다.

13) 李昭東 《〈史記〉指稱化現象研究》, 북경대학박사학위논문, 2010, 13-14쪽 참조.

14) 陳祝琴 《論上古漢語體詞性成分的陳述化》, 북경대학석사학위논문, 2007, 56-57 참조.

IV. 결론

고대한어의 문헌을 접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 동사가 출현해야 할 부분에 명사나 명사구가 출현하여 의미를 모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詞類活用, 兼類詞, 陳述化 등의 술어로 설명해 왔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좀 극단적이긴 하나 근본적이고 통일된 관점에서 何莫雅는 고대한어의 모든 명사에 분류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정도의 진술성을 띤다고 주장하기도 하였고¹⁵⁾, 朱德熙는 주어자리에 출현하는 명사의 진술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¹⁶⁾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고대한어의 실제 문헌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대한어에서 현대한어와 구분되는 몇 가지 통사 현상, 즉 형용사나 명사의 意動용법, 使動용법, 그리고 명사술어문 등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는 모두 분류동사와 개사, 접속사 등의 은합이라는 고대한어 고유의 통사적 특징의 반영이었던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논쟁이 많이 되었던 문제들, 예를 들어 “NP者”, “NP而/則VP” 등의 구조 또한 이들 단어의 은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들 구조는 대표적인 陳述化구조로 그 陳述化 발생의 동인이 명사 자체의 의미적 요소에 있지 않고, 이러한 단어의 隱습性 생략에 의한 통사적 측면에서 기인함을 밝혀 낼 수 있었다.

고대한어에서, 일부동사와 개사, 접속사의 은합은 이미 그 당시의 보편적인 언어 현상으로, 이들 단어가 생략되지 않은 유사한 표현들과 함께 출현하고 있는데, 당시 이 여러 가지 표현의 사용은 그 문장의 문체와 풍격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어떠한 환경에서 이들 단어가 은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5) 何莫雅(Christoph Harbsmeier): 〈先秦漢語的名詞從何處來〉, 《古代中國》(Early China), 1983-1985년 9-10기. (朱德熙 〈關於先秦漢語里名詞的動詞性問題〉에서 재인용)

16) 朱德熙 〈關於先秦漢語里名詞的動詞性問題〉, 《朱德熙文集》 제3권, 商務印書館, 1999, 155쪽 참조.

【參考文獻】

- 呂叔湘《中國文法要略》，商務印書館，1982。
呂叔湘《漢語語法問題分析》，《漢語語法論文集》，商務印書館，1984/2002。
王力《古代漢語》第2冊，中華書局，1982。
薛鳳生〈試論連詞“而”字的語義與語法功能〉，《語言研究》1991年 第1期。
陳祝琴《論上古漢語體詞性成分的陳述化》，《東華大學學報》2007年 第1期。
袁毓林〈“者”的語法功能及其歷史演變〉，《中國社會科學》1997年 第3期。
李昭東《史記指稱化現象研究》，《東華大學學報》2010年 第1期。
朱德熙〈關於先秦漢語里名詞的動詞性問題〉，《朱德熙文集》第三卷，商務印書館，1999。
朱德熙〈自指和轉指－漢語名詞化標記“的、者、所、之”的語法和語義功能〉，《朱德熙文集》第三卷，商務印書館(1983/1999)。
張文國《古漢語的名動詞類轉變及其發展》，中華書局，2005。
呂厦敏《左傳名詞陳述化研究》，《東華大學學報》2010年 第1期。
張玉林〈關係動詞的鑑定標準〉，《言語教學與研究》，2002年 第4期。
黎錦熙《新著國語文法》，商務印書館，1992/2000。
馬建忠《馬氏文通》，商務印書館，1983/2002。
劉月華 等《實用現代漢語語法》，商務印書館，2001。
張靜《現代語法》，上海教育出版社，1980。
郭銳《現代漢語詞類研究》，商務印書館，2002。
李佐豐《古代漢語語法學》，商務印書館，2004。
宋紹年 等《古代漢語知識教程》，《東華大學學報》2002年 第1期。

【中文提要】

古漢語里有一些詞在句中常常不出現。這不是因為省略而引起的，而是因為該句子里隱含着這些詞而產生的。這些詞主要就是：分類動詞，兼語動詞“使”，“讓”，介詞，連詞等。古漢語里這些詞的不出現與各種句法結構的產生有密切的關係，比如古漢語里常見的名詞謂語句，形容詞，名詞的意動和使動用法等，也產生了名詞狀語和名詞補語等術語。我們姑且把這些因隱含而產生的結構叫做“隱含性省略結構”。

隱含性的省略也與古漢語里常常發生的陳述化現象有關。從目前研究陳述化的結果來看，人們都把陳述化發生的動因探求於名詞本身固有的語義成分。但是，陳述化發生的原因不一定是名詞內部的陳述因素。本文里，通過三種陳述化結構的分析，進行考察了其陳述化發生的原因。首先說“NP者”。“NP者”結構既可以說是指稱化結構，也可以說是陳述化結構。古漢語里“VP者”和“所VP”結構被認為是典型的指稱化結構，就是把指稱化標記“所”，“者”前后的VP轉化為名詞性成分。如果NP代替VP并形成“NP者”，那麼這個NP先發生陳述化為VP，然後再發生指稱化。NP轉化為VP時，其陳述語義結構就是“分類動詞+NP”。其次，古漢語里普遍地存在“NP+NP”動賓結構，也就是一個陳述化結構。“NP+NP”動賓結構里前一個NP就陳述化為意動或者使動，整個語義結構為“以NP為NP”或者“使NP為NP”。最後，古漢語里“NP而/則VP”結構也被認為是一種陳述化結構，NP轉化為VP之後，都帶着相關的陳述語義。其中，NP和VP在邏輯語義關係上形成主謂結構時，NP發生陳述化之後，其語義結構為“作為NP”，“若NP”，“若是NP”，“為NP”等。

這三種陳述化結構的陳述化動機顯然與NP自身帶有的陳述因素並沒有關係。這三種結構發生陳述化時表面上突出的陳述語義都是由前面所涉及到的分類動詞，使動詞，介詞，連詞等來承擔的，也就是說這三種陳述化結構都是因這些詞隱含而發生的。由此可知，古漢語里普遍存在的一些詞的隱含性省略對古漢語里存在的一些特殊結構產生了直接的影響。

【主題語】

陳述化，隱含，“NP者”，“NP+NP”動賓結構，“NP而/則VP”結構

투고일: 2011. 4. 20 / 심사일: 2011. 4. 25~5. 6 / 게재확정일: 2011. 5. 13